한은, 제2금융권도 유동성 자금 지원…'뱅크런' 막는다

SVB 사태 계기로 대출제도 개편…상시대출제도 적용금리 등 조정
담보증권, 지방채·우량회사채 등으로 확대…대출채권 포함 추진도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기준금리+100bp(1bp=0.01%p)'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해,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추가로 은행에 대해서는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필요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시장성증권 투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Z플립5·폴드5 공개 '갤럭시 언팩'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행사 '갤럭시 언팩'에서 세계 각국 미디어들이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 등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전남 7월 제조업 경기 '암울'…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

광주와 전남지역 제조업 기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7월 지역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6으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다음 달 업황전망BSI도 61로 지난달과 비교해 무려 15포인트나 내렸다.

업황 BSI는 기준치(100) 이상이면, 긍정으로 답한 업체 수가 부정 응답 업체 수보다 많고, 이하는 그 반대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한 2020년 5월 43으로 바닥을 찍었던 경기지수는 최근 2년간 60~70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제조업 매출BSI와 다음 달 매출전망BSI는 각 72와 66으로 전월 대비 6포인트와 7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신규수주BSI(69)는 2포인트, 다음 달 신규수주전망BSI(65)는 6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18.3%), 내수 부진(18.0%),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5.5%) 등의 순이었으며 수출 부진(10.7%)과 원자재 가격상승(9.2%)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는 지역 내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중 585개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외환매매 서비스 'FX트레이딩' 시행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시작 할 수 있는 '광주은행 FX트레이딩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은행 FX트레이딩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시간 적용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로, 가입시 1회 환율우대 승인으로 유효기간 내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실시간 원화대가거래(KRW↔외화)와 이종통화거래(USD↔외화)를 제공하며, 서비스 가능 통화는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총 10개 통화다.

건별 거래한도는 주요통화의 경우 달러 기준 50만불 상당액 이하, 기타통화는 30만불 상당액 이하이며, 주요통화는 최소 50% 환율 우대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 창구를 통해 국민인 거주자(법인 포함)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가능하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FX트레이딩 서비스가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본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담양한빛신협 자산 1000억원 달성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하)는 최근 담양한빛신협 본점에서 자산 1000억원 달성 기념패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담양한빛신협은 취약계층을 위해 장판, 도배 등의 봉사를 진행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상권을 돕는 '소상공인 어부바플랜'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하 지역본부장은 "자산 1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더욱 내실 있는 신협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며 꾸준한 성장을 통한 정도경영을 하는 담양한빛신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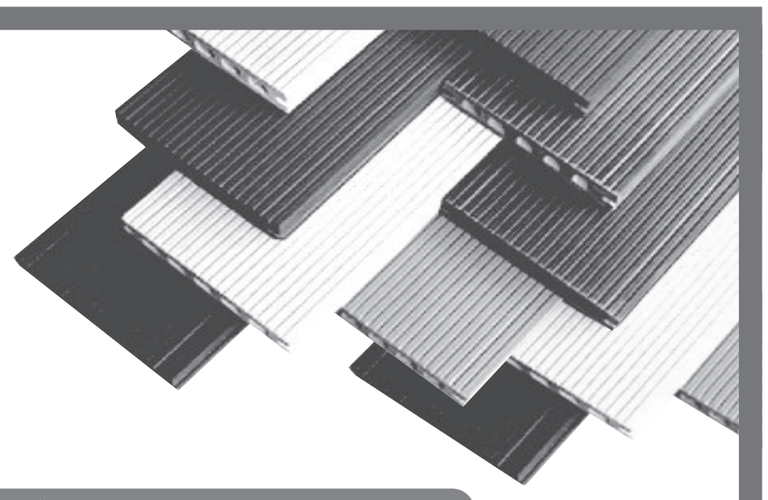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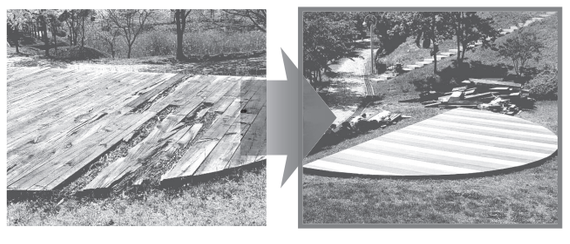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